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콘텐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나믹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가입시

당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synergy.co.kr 061320-7700, 7714



14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폐회식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인 종합 3위를 거둔 광주시의 전학철 시체육회 사무처장(오른쪽 두번째)과 박재현 경기팀장(맨 오른쪽)이 시상대에 올라 기쁨을 나누고 있다.

■ 베이징 '모의고사' 광주체전

기록종목 대도약
올림픽 희망 쫓았다

14년 만에 '빛고을' 광주를 다시 찾은 전국체전이 각종 신기록을 쏟아내며 내년 베이징 올림픽의 희망을 밝혀내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내 후보도시인 광주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승인을 받아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제대회 개최 도시로서도 손색이 없는 운영을 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박태환 한국신·장미란 3관왕... 세계 정상급

육상은 예상 밖 부진...이원희 탈락 이변도

경기 내용면에선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마린보이' 박태환이 버틴 수영 종목이 그 중심에 섰다. 박태환은 지난 13일 자유형 100m에서 '마의 50초 벽'을 깨고 49초32에 터치 패드를 찍어 한국기록을 만들어냈다. 44년이나 넘지 못한 50초 벽을 깬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세계기록(47초84)에 1.48초, 아시아기록(48초91)에 0.41초 차로 다가서 스프린트 종목인 100m에서도 우리 수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더 값졌다. 이어 최종일인 14일 혼계영 400m 금메달로 5관왕에 올랐고 2005년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체전 MVP가 됐다. 수영에서 박태환과 함께 한국기록을 작성한 평영 정슬기(연세대·서울), 접영 최혜라(서울체고·서울), 신혜인(북원여고·강원)도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여자 수영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안겼다. 특히 올해 여름에 세운 한국기록을 한 두달 만에 바꿨다는 점에서 기록 행진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여자 헤라클라스' 장미란(경기)도 여

자 역대에서 세계 수준의 경기력으로 금빛 바발을 3개나 들어올렸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띈다. 기초 종목인 육상은 8월 오사카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톱 10'에 들었던 남자 세단뛰기 김덕현(광주)이 안방 필드에서 4cm 차이로 한국기록을 놓쳤고 28년 묵은 100m 한국기록도 임희남(경기)이 10초37에 그쳐 0.03초의 벽을 절감했다. 육상은 마지막 날인 14일 최종명(강원)이 원반던지기 한국기록(58m68)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또 이번 전국체전에서 국제적 스포츠 스타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이변도 속출했다. 광주체전을 재기 무대로 삼은 유도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광주)는 첫 판부터 탈락의 쓴 잔을 마셨고, '신공'이 특영(광주) 등 국가대표들이 국내 스포츠 강자들에게 빈번히 달미를 잡았다. 경기 외적인 면에선 소프트볼 관계자의 폭행 사건 등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했지만, 전반적으로 매끄럽고 차분하게 치러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전국체전 특별취재단

기록·단체종목 광주 3위 이끌었다

내년 개최지 전남 지난해 8위서 12위로 추락 아쉬움

광주시가 광주·전남 분리이후 최고 성적인 5만2천312점을 획득해 종합3위를 기록했고, 전남은 지난해 보다 4계단 하락한 12위로 추락했다. 광주는 금57개, 은 56개, 동73개로 5만2천여점을 따내는 선전을 펼쳤으나 전남은 금 52개, 은 35개, 동 61개를 획득하며 3만5천112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꿈도 함께! 전진도 함께! 영광도 함께!'의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 일원에서 7일 동안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14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폐막됐다. 종합 우승은 경기도가 7만9천430점을 얻어 6연패의 금자

탑을 이루었고, 서울은 6만5천3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번대회에서 한국기록은 모두 21개로 작년 경북 체전(59개)보다 줄었지만 비올림픽 종목인 인라인롤러와 수종의 기록 비중이 작년 86%(51개)에서 57%(12개)로 낮아진 반면 수영(4개), 역도(2개), 육상(1개), 양궁(1개), 사격(1개)에서 골고루 기록이 나와 질적으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소향(우리은행)은 사격 여자일반부 50m 소총복사에서 599점(600점 만점)으로 세계기록(597점)을 2점 추월했지만 비공인으로 남았다. ▲광주=광주전자공고가 남고 배구에서 경기 송립고를 3-

0으로 제치고 금메달을 보였고, 국군체육부대는 럭비 일반에서 역시 금을 더했다. 서구청은 펜싱 여자일반 예매에서 경기선발을 제압하고 금빛 찌르기를 성공시켰다. 육상에서는 이성준·안영준·이형우·김다빈(조선대)이 남대부 1,600m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양찬우(광주선발)는 레슬링 남자일반 자유형 120kg급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이학운(전남체고)은 육상 남고부 장단지거서, 서행준(건국대)은 남대 하프마라톤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여고부 1천600m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수영에서는 전남선발이 여고부 혼계영 400m에서 대회신을 작성하며 마지막 금빛 역을 펼쳤고, 펜싱 여자일반 전남도청은 안산시청을 45-42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보냈다. 김달은(부영여고)은 여고부 자유형 500m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사이클 종합우승

전남사이클이 3년만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사이클은 이번 체전에서 금 9개, 은 3개, 동 2개를 따내며 종합득점 2천268점을 획득, 지난 2004년 충북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이룬 뒤 3년만에 정상에 다시 올랐다. 여고·남고부 나주 미용고와 금성고, 여자일반 나주시청과 남자일반 강진군청으로 이뤄진 전남사이클 선수단은 전남사이클협회 회장인 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 <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의 전폭적인 지원, 국가대표를 지낸 양재환 전무이사,

조장수 금성고코치, 장선희 미용고 코치, 박경춘 강진군청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이 어우러진데다 나주에 사이클 전용경기장인 벨로드롬을 갖추고 있었기에 전국정상정복이 가능했다. 2005년 종합3위, 지난해 종합2위로 한발 한발 전진은 했지만 종합우승은 과거 영광으로만 달래야 했던 전남사이클은 지난 체전 이후 고등부와 실업부 선수가 전지훈련을 함께 하는 등 이번 체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력 있는 연습을 했다. 특히 양 전무는 이번 체전과 내년 전남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대표 감독직



을 사임하고 전적으로 매달리는 열의를 보였다. 특히 나원주 전남사이클협회 회장은 선수들의 영양보충은 물론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고, 신장훈 나주시장도 내년 전국최고 수준의 선수단 숙소를 지어주는 등 선수단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양 전무는 "협회 회장님과 시장님 등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고 감독·코치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수들의 무지가 오늘의 영광을 이뤘다"며 "내년 전남체전에서 2연패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깝다! 전종목 우승 가능했는데”

벨인퍼컴 볼링 5종목 중 3인조만 금 놓쳐 '금 4·은 1'

“아! 아깝다. 3인조전 금메달만 있으면 체전 사상 전종목 우승도 가능했는데...” 지난 13일 불링 여자 실업부 마스터즈 경기가 끝난 광주 ABC볼링장에서는 볼링 관계자들의 안타까움과 시샘이 깃든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볼링 여자부 일반부에 광주대표로 출전한 벨인퍼컴 여자 볼링팀 <사진>이 5종목중 마지막 경기인 마스터즈에서 1~3위를 싸붙이 하며 전국체전 사상 첫 5종목중 4종목 금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세운것.



벨인퍼컴 선수들은 8~9일 강해은이 개인전에서 987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어 10일 2인조전에서 이나영과 손연희가 짝을 이뤄 4게임 평균 213.8점을 획득역시 금메달을 따내며 기세를 올렸다. 11일 홍수연·이나영·윤희여가 조를 이뤄 또 하나의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은. 종합우승은 확실히 됐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 벨인퍼컴 선수들은 12일 5인조전에서 강혜은·홍수연·이나영·손연희·김여진·윤희여가 조를 이뤄 4게임 평균 207점으로 3번째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13일 마스터즈에는 체전 출전 여자 실업부 96명중 5명이 결승에 올라 금메

달은 물론이고 은과 동마저 싸붙이 하며 체전 사상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신기원을 달성했다. 특히 대통령배 3관왕인 강해은은 개인전과 5인조전, 마스터즈에서 우승, 3관왕에 올랐고, 이나영과 손연희, 윤희여는 2관왕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김여진, 홍수연, 강혜은, 이나영, 윤희여등 5명의 국가대표가 포진하고 있는 벨인퍼컴은 대통령배, 협회장기, 실업연맹회장기, 대한체육회장기 등을 시전 열린 전국대회에서 4번 우승을 이루며 이미 전국최강의 전력을 인정받고 있어 당분간 여자 실업부는 벨인퍼컴 천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중범 광주볼링협회 전무이사는 “조종국 벨인퍼컴 대표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기본기가 완벽한 선수들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열심히 해줘 체전 사상 첫 기록을 세운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화제의 인물

“세월은 14년 흘렀지만
기량은 녹슬지 않았다”

박정희씨 등 17명 노장 투혼... 금 2, 은 1, 동 4개 획득

세월도 노장들의 '열정'만은 막지 못했다. 지난 1993년에 열린 제74회 광주 전국체전에서 광주대표로 출전했던 17명의 선수가 14년 만에 광주에서 다시 열린 전국체전에 광주대표로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발휘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노장' 소리를 들었던 30대 이상의 선수들이지만 이중 8명의 선수가 광주에 메달을 안겨주었다. 이들이 따낸 메달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다. 특히 검도 단체전 경기에 출전한 광주 부구청 소속 양진석(35)·김태호(33) 선수는 지난 74회 체전에서 조선대 소속으로 출전,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이번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

을 따내 오히려 향상된 실력을 뽐냈다. 17명의 노장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격의 박정희(여·40)는 1993년 당시 스포츠권총과 공기권총 부문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번 체전에서는 공기권총 단체

에서 2위를 차지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전남여고에 재학중이던 14년 전 예매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거머쥘었던 광주 여자 펜싱의 대들보 김선화(여·31)는 광주

93년 이어 올 대회 출전한 광주 30대 선수들

서구청 소속으로 출전한 이번에도 금메달을 획득, 유일하게 두 번의 광주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선수로 기록됐다. 또 레슬링의 양한진(32·74회 동메달)이 그레코로만형 96kg급과 자유형 96kg급에서 동메달 2개를 따낸 것을 비롯, ▲정구 박상국(31·74회 동메달) 단체전 동메달 ▲씨름 한석(37·74회 금메달) 동사급 95kg 동메달을 일컫내 식지않은 '열정'을 선보였다. 하지만 74회 체전 3관왕이었던 역도의 황규동(32) 선수는 62kg급에 출전, 인상에서 4위에 그쳤고 테니스 단체전 동메달리스트였던 김성중(32)과 임석현(31)도 예선에서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국체전 특별취재단